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관한 연구 -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김평수* · 김공** · 서석윤*** · 김영남****

〈요 약〉

본 연구는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11년 4월 광주·전남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고, 표본추출은 무작위표본추출, 설문조사는 자기평가기입법을 실시하여 총 171(85.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 Version 17.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인들 간의 Pearson's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취업스트레스의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환경은 정(+), 학업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스트레스의 모든 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스트레스의 학교환경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에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스트레스의 성격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미래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격은 부(-), 취업불안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경호전공, 사큐리티, 취업스트레스, 진로자기효능감, 대학생

* 전남도립대학교 경찰경호과 조교수(제1저자)
** 전남도립대학교 경찰경호과 초빙교수(교신저자)
*** 전남도립대학교 경찰경호과 외래교수(공동저자)
**** 전남도립대학교 경찰경호과 겸임교수(공동저자)

목 차

- | |
|--|
|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
|--|

I. 서 론

2011년도 기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국 대학에 대하여 기관평가인증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면서 대학의 역량을 평가하는 소위 서열화 작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검증받은 대학 및 전문대학은 평가지표에 따라 정부가 국가재정지원의 차등지원 또는 감소나 폐지 등 점진적 억제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주목할만한 주요평가 항목을 보면 대학의 입학률, 재정, 장학금 등의 많은 항목 중에 취업률(표 1 참조)의 비중을 높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 2011). 이는 대학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많은 평가영역 중 성과중심인 취업률 지표를 높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에는 우리사회 관심의 대상이 된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정부가 직접 관여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 기관평가인증 기준표 일부발췌

세부기준	평가요소	주요내용	지표
교육성과	졸업생 취업	졸업생 취업현황, 졸업생의 취업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기타사항	정량평가
취업지원 활동	취업지원체제	취업자의 인력과 배치, 역할과 책임, 취업지원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기타사항	정성평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계획과 평가	학생 취업지원 계획수립 절차, 취업지원 계획 수행활동 평가, 평가결과의 환류, 기타사항	정성평가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자료

최근 한국 사회는 불안정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을 졸업해도 구직난에 허덕이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성공적인 취업은 매우 힘든 일이 되었으며 치열한 경쟁 관계에서 전공 대학생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 2012).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분석 자료에 의하면(2012년), 2011년 예체능계열의 취업현황은 먼저 전문대학 졸업자 남자43.1%, 여자 41.7%, 4년제 대학 남자43.3%, 여자 34.7%로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계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체능계열로 분류되고 있는 경호관련학과(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 4년제 대학 25개 학과, 전문대학 13개 학과, 경찰 및 경호전공을 혼용하는 학과는 4년제 2개 학과, 2년제 대학 13개 학과 등 53개 학과 개설) 학생들의 취업률 역시 저조하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경호관련 전공학생들은 재학 중 진로문제에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전공분야 취업 일치도에 있어서는 전문대학의 경우 평균 71%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중 남자는 정규직 취업률 58.2%, 비정규직 취업률 26.1%, 여자는 정규직 취업률 57.4%, 비정규직 취업률 27.3%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도 전문대학과 유사한 평균 77.4%로 예외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남자 정규직 취업률은 45.9%, 비정규직 취업률 22.6%은 나타났다. 여자는 정규직 취업률 32.8%, 비정규직 취업률 32.5%에 이르고 있어 대학 졸업 후 취업문제에 있어서는 2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이 공통적으로 당면해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로 비추어 볼 때 전문대학 그리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경호관련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에는 우리사회 현실에서 매우 힘이 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안정한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이가 이러한 문제는 대학 졸업생들에는 삶의 불만족감이나 목표에 따른 인생의 향로가 불투명한 경우로 이어지게 되며, 예비 사회인으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의 경호관련 전공학생들에게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악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은 대학의 경호관련 재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직·간접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취업스트레스에 대해서 경호관련 학생들의 진로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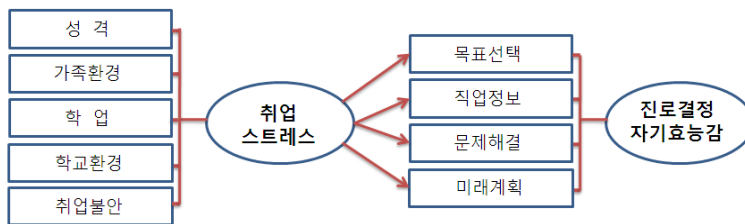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재학생들의 진로 자기효능감에 따른 집중적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진로 및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만족스러운 진로 및 취업을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 및 진로상담은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진로상담 및 지도연구 중에서 최근 진로와 관련한 개인의 믿음과 자신감의 문제에 주목되는 분야는 자기효능감이다(김명옥, 2011).

Bandura(1997)는 자기 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서 행동의 선택, 수행 그리고 지속성 등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명옥 재인용, 2011). 이에 대해 Hackett와 Betz(1981)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론을 진로와 직업 영역에 도입한 것이 직업적 자기효능감이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 자신이 목표한 진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감이며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지각인 것이다(김명옥,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을 규명해보고,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양한 전공영역 중에서 특히,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 자기 효능감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호관련 대학생들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대학에는 취업에 대한 진로지도 및 취업을 위한 정책적 자료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가설

- <가설.1> 취업스트레스의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취업스트레스의 모든 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취업스트레스의 학교환경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취업스트레스의 성격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미래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1년 4월 광주·전남 지역 2~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호 관련학과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추출은 무작위표본추출(random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와 설문지 조사경험이 있고, 사전에 교육받은자와 설문보조자 5명이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에 따른 취지를 설명한 후,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ed method)으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응답자 200명 가운데 불성실한 설문응답으로 연구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29명의 응답 자료를 제외한 총 171(85.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

구 분		빈도(명)	구성비(%)
학교지역	광주	83	48.5
	전남	88	51.5
학년	1학년	69	40.4
	2학년	71	41.5
	3학년	25	14.6
	4학년	6	3.5
연령	20세이하	68	39.8
	21세	56	32.7
	22세	23	13.5
	23세	12	7.0
성별	24세이상	12	7.0
	남자	146	85.4
학교성적	여자	25	14.6
	4.5이하-4.0미만	54	31.6
	4.0이하-3.5미만	75	43.9
	3.5이하-3.0미만	37	21.6
	3.0이하	5	2.9
합계		171	100.0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설문지를 측정도구로 활용하였고, 설문지 모든 문항들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 취업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첫째,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은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nell Medical Index: CMI)(Shepherd et al. 1966)을 참고하여 황성원(1998)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72문항의 검사로 제작하였다. 이를 강유리(2006), 김명옥(2011), 이미경(2004) 등이 대학생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로 사용하였고, 이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취업스트레스는 ‘성격스트레스 6문항’, ‘가족환경스트레스 5문항’, ‘학업스트레스 4문항’, ‘학교환경스트레스 4문항’, ‘취업불안스트레스 3문항’,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설문은 Betz, Klein과 Taylor(1996)가 개발한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이기학, 이학주(2000)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 이를 수정·보완한 이은경(2001)의 설문을 최근 김명옥(2011), 이미경(2004) 등에 의해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의 50문항을 25문항으로 단축한 것이다.

CDMSES-SF는 효과적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목표선택 11문항’, ‘직업정보 5문항’, ‘문제해결 3문항’, ‘미래계획 6문항’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의 구성 내용

구성지표	구성 내용(문항 수)	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교 지역/학년/연령/성별/학교 성적	5
취업 스트레스	성격스트레스(6문항)/가족환경스트레스(5문항)/학업스트레스(4문항)/학교환경스트레스(4문항)/취업불안스트레스(3문항)	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목표선택(11문항)/직업정보(5문항)/문제해결(3문항)/미래계획(6문항)	25
	계	52

3. 타당도 및 신뢰도

요인분석의 타당도 검증은 변수들이 각각 분리되어 고유한 특성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측정변수와 관련된 항목들이 잘 묶여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이다.

<표 4>,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각 항목

들에 대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의 연관성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통계상 유의성 확보를 위하여 요인분석에 의하여 추출된 요인행렬을 설명하는데, 요인 적재치의 기준은 .40 이상인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고유치는 1.0 이상의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전체변량은 취업스트레스는 66.752로 67%의 설명력을 보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9.857로 60%의 설명력을 나타내, 설문문항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타당하게 측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4〉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요인	문항	성분				
		1	2	3	4	5
성격	4. 취업을 못하지는 않을까 항상 불안하고 걱정됨.	.758	.222	.169	.215	.080
	1. 요즘 취업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사소한 일에도 민감함.	.733	.137	.001	.118	.214
	2. 꿈속에서도 취업 걱정을 함.	.713	.235	.008	-.036	.358
	7. 취업에 실패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도 있음.	.688	.121	.173	.222	.131
학교 환경	8.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취업을 해야 하지만 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짐.	.653	.269	.204	.236	.102
	16. 실력을 갖췄지만 우리 학교 수준이 낮아 서류 전형에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됨.	.014	.814	.080	.237	.086
	17. 지도교수님이 나의 취업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보여주지 않으셔서 섭섭함.	.200	.724	.054	.192	.141
	15. 우리 학교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	.328	.719	.034	.096	.133
가족 환경	18. 지방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조건에서 불리할 것임.	.296	.710	.069	.235	.043
	12.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어 취업을 반드시 해야함.	-.004	-.004	.816	.173	.111
	11. 졸업 후 진학(편입,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지만, 집안 사정 상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함.	.070	.142	.671	.186	.319
	10. 대학공부로 인해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므로 내가 꼭 취업해서 갚아 드림.	.166	.116	.650	-.362	-.236

	13. 경제 사정을 생각하면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야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음.	.471	.031	.648	.085	-.023
학업	19. 취업에 있어 어떤 점들이 부족한지 알지만 노력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듦.	.172	.359	.048	.753	.246
	20. 취업준비를 하느라 학점관리를 제대로 못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	.282	.305	.147	.719	.093
	21. 능력(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임.	.438	.324	.105	.640	.041
취업 불안	5. 요즘 나는 취업 걱정으로 술, 담배, 약물(두통약)복용 등이 늘었음.	.154	.451	.157	-.058	.731
	9. 취업 자리를 놓칠까봐 많은 시간을 취업관련 사이트나 신문, 잡지의 구직난을 꼼꼼히 살펴봄.	.280	-.085	-.034	.205	.672
	6.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입맛이 별로 없음.	.275	.310	.179	.236	.581
	Eigen value	3.489	3.087	2.167	2.122	1.819
	Variance(%)	18.361	16.247	11.403	11.167	9.575
	Cumulative Variance(%)	16.661	34.608	46.011	57.177	66.752
	Cronbach's α	.848	.829	.703	.837	.664

〈표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요인	문항	성분			
		1	2	3	4
미래 계획	10.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향후 10년간의 고용동향을 알 수 있음.	.782	.042	.119	-.040
	12. 이력서를 잘 준비할 수 있음.	.631	.043	.304	.036
	5. 나의 능력을 정확히 알 수 있음.	.617	.341	.147	-.062
	4. 내가 선택한 전공과 관련해서 학업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	.532	.193	.158	.425
목표 선택	2. 선택 가능한 전공들 중에서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음.	.049	.797	.208	-.050
	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서 찾을 수 있음.	.091	.774	.202	.074
	3. 나의 진로목표에 대해서 향후 3년간 계획을 세울 수 있음.	.422	.589	-.052	.136
	8.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목표로 하는 전공이나 진로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수 있음.	.417	.452	.270	.197
직업 정보	23. 졸업 후 진학(원인,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음.	.046	.178	.807	.265
	21.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308	.209	.725	.139

	기업에 대해 언제든지 알아 볼 수 있음.				
	24. 취업면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들을 수행하는데 자신이 있음.	.365	.130	.662	-.197
문제 해결	13. 처음에 선택한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음.	.142	-.129	.041	.789
	17.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음.	-.141	.220	.093	.659
	Eigen value	2.306	2.099	1.938	1.438
	Variance(%)	17.737	16.149	14.910	11.060
	Cumulative Variance(%)	17.737	33.887	48.797	59.857
	Cronbach's α	.674	.716	.726	.573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연구 목적에 적절치 않은 자료와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제외한 분석이 가능한 자료는 SPSS for Win Version 17.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직교회전 방식 중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는 각 변인들 간의 영향력 검증에 앞서 Pearson's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취업스트레스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력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alpha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변인 간의 상관분석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들 간의 관련 정보와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문제해결)의 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값은 -.169에서 .631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기준인 .80보다 작으므로(김계수, 2004)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변인 간의 상관분석

변인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성적	1								
직업 스트레스	가족 환경	.379***	1						
	학업	.591***	.273***	1					
취업 불안	학교 환경	.535***	.242***	.631***	1				
	취업 불안	.558***	.270***	.486***	.488***	1			
진로 결정 자기 효능 감	목표 선택	-.017	.200**	-.169*	-.150	-.039	1		
	직업 정보	-.052	.056	-.147	-.147	-.051	.489***	1	
	문제 해결	.232**	.061	.216**	.273***	.145	.160*	.176*	1
	미래 계획	-.119	.071	-.097	-.091	.225**	.524***	.531***	.139

*p<.05 **p<.01 ***p<.001

2.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목표선택)의 관계

〈표 7〉은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목표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 요인과의 관계에서는 취업스트레스의 가족환경($t=3.221, p<.001$), 학업($t=-2.001, p<.001$) 요인이 목표선택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베타계수로 본 독립변수인 가족환경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beta = .258$ 로 나타났으며, 학업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beta = -.208$ 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 요인 전체 변량의 10.4%($R^2 = .104$)를 설명해 주고 있고, F값은 3.813으로 유의한 ($p < .0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목표선택)에 미치는 영향

모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목표선택)			t(p)	f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194	.250	-	12.782***		
취업 스트 레스	성격	.055	.085	.067	.645	3.813**
	가족환경	.225	.070	.258	3.221**	
	학업	-.167	.084	-.208	-2.001*	
	학교환경	-.102	.082	-.124	-1.243	
	취업불안	.015	.088	.016	.167	
$R^2 = .104 \quad adj.R^2 = .076$						

* $p < .05$ ** $p < .01$ *** $p < .001$

3.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직업정보)의 관계

〈표 8〉은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직업정보)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 요인과의 관계에서는 취업스트레스의 모든 요인이 직업정보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직업정보)에 미치는 영향

모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직업정보)			t(p)	f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335	.267	-	12.488***		
취업 스트 레스	성격	.034	.091	.040	.370	1.354
	가족환경	.090	.075	.100	1.212	
	학업	-.111	.089	-.134	-1.242	
	학교환경	-.101	.088	-.119	-1.149	
	취업불안	.023	.094	.023	.242	
$R^2 = .039 \quad adj.R^2 = .010$						

*** $p < .001$

4.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문제해결)의 관계

<표 9>은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 요인과의 관계에서는 취업스트레스의 학교환경($t=2.034, p<.05$) 요인이 문제해결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베타계수로 본 독립변수인 학교환경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beta = .205$ 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 요인 전체 변량의 8.8%($R^2 = .088$)를 설명해 주고 있고, F값은 3.171로 유의한($p<.0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모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문제해결)			t(p)	f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상수)	2.352	.284	-	8.269***		
취업 스트 레스	성격	.129	.097	.139	1.332	3.171**
	가족환경	-.040	.079	-.041	-.502	
	학업	.031	.095	.034	.328	
	학교환경	.190	.093	.205	2.034*	
	취업불안	-.041	.100	-.039	-.410	
$R^2 = .088 \quad adj. R^2 = .060$						

* $p<.05$ ** $p<.01$ *** $p<.001$

5.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미래계획)의 관계

<표 10>은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미래 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미래계획 요인과의 관계에서는 취업스트레스의 성격($t=-2.987, p<.01$), 취업불안($t=5.253, p<.01$) 요인이 미래계획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베타계수로 본 독립변수인 성격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beta = -.297$ 로 나타났으며, 취업불안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beta = .471$ 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미래계획 요인 전체 변량의 17.1% ($R^2 = .171$)를 설명해 주고 있고, F값은 6.800으로 유의한($p < .00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미래계획)에 미치는 영향

모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미래계획)			t(p)	f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018	.235	-	12.836 ^{***}		
취업 스트 레스	성격	-.240	.080	-.297	-2.987 ^{**}	6.800 ^{***}
	가족환경	.099	.066	.115	1.500	
	학업	-.081	.079	-.103	-1.035	
	학교환경	-.100	.077	-.125	-1.297	
	취업불안	.433	.082	.471	5.253 ^{**}	
$R^2 = .171$ $adj.R^2 = .146$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최근 우리사회는 IMF경제위기 이상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감 및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한 빈부차의 확대, 실업률의 증가 등 제반 영역에서 특히 우리사회의 미래 척도로 볼 수 있는 대학졸업자의 청년실업은 여전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진로 자기 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하여 보다 성공적인 취업전략을 구축하고 취업가치관을 탐색하는 것은 대상자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 자기 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주요 선행연구로는 김명옥(2011), 이미경(2004), 이기학·이학주(2000), 황성원(1998), 김승용·허선(2009), 이순주(2009), 전도현(2009) 등의 연구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 연구자의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결과로 분석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직·간접적 체감 정

도에 따라 육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승용·허선(2009)의 흥미로운 연구결과에서는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평균값이 2.6326으로 5점을 최고치로 할 때 보통수준을 보이고 있어 Rhyu와 Kim(1998)이 일반 대학생을 조사한 평균 2.64와 거의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비교했다(김승용·허선, 2009, 재인용).

이는 과거나 현재에 있어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명확한 분석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가지고 유형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심층 분석하는데 기본적 의의를 두고 있다. 이는 대학의 모든 전공 및 학과를 대상으로 방법 및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연구결과가 광범위하고 연구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본 연구는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결과로써, 이를 위해 2011년 4월 광주·전남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추출은 무작위표본추출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자기평가기입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총 171(85.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 Version 17.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인들 간의 Pearson's 상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목표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업스트레스의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환경은 정(+), 학업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선택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호전공 대학생이 그렇지 못한 대학생보다 대학생활에 적응을 더 잘한다고 주장한 이윤조(2002)의 연구, 자기 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간에 높은 상관관계는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적응을 돕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된 고향자(1993), 강혜원(2009)의 연구와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가족환경요인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학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영미(1990)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그 차이는 취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비교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

또한, 학업에 있어서는 황성원(1998)의 학업에 대한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위변인인 학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학생들의 가치관의 변화 또는 취업스트레스를 의식하고 있으나 학업에 대한 영향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는 견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기업의 채용환경의 변화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대학생활에서 얻은 성적보다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으로 자신의 스펙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취업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전공 자격증 취득정책을 활성화 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야 할 것으로 시사된다.

둘째,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직업정보)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업스트레스의 모든 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옥(2011)의 연구에 의하면 저학년의 경우 스트레스의 경험이 적고 고학년이 될수록 스트레스의 설명력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문제해결과 직업정보 중 모두 또는 어느 하나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취업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시사된다. 이러한 이유에서는 저학년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나 취업정보에 대해 낮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그러나 김명옥(2011)의 연구에서는 고학년이 될수록 직업정보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진로나 취업에 대해 관심도가 점진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셋째,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 요인과의 관계에서는 취업스트레스의 학교환경($t=2.034, p<.05$) 요인이 문제해결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타계수로 본 독립변수인 학교환경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beta = .205$ 로 나타났다.

이순주(2009)의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및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문제해결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속에서 특히 직업세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직장의 개념 보다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시사된다. 때문에 취업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나 지식의 양은 증가하고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할 때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스트레스의 학교환경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에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황성원(1998)의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결과 환경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시사되며 지방대학생들 특유의 취업스트레스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대학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대학에 대한 국가 정책적 특성화 정책을 개발 및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대학생들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변화 및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시사된다.

넷째,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미래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미래계획 요인과의 관계에서는 취업스트레스의 성격($t=-2.987, p<.01$), 취업불안($t=5.253, p<.01$) 요인이 미래계획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타계수로 본 독립변수인 성격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beta = -.297$, 취업불안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beta = .471$ 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의 성격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미래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성격은 부(-), 취업불안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스트레스는 미래계획에 대한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 이순주(200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직업세계가 어느 때보

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사되며, 세분화 또는 전문화됨에 따라 직업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정보의 습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올러 경호관련 직업이 불안정 하다는 관념이 지배적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충분한 정보를 탐색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취업전략 및 취업계획의 확립이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스트레스의 모든 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목표를 선택함에 있어 취업스트레스는 경호전공 대학생들에게 주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 축적을 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취업스트레스의 모든 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저학년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나 취업정보에 대해 낮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취업스트레스의 학교환경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지방대학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 또는 특성화 및 지원 정책을 개발 및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방대학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변화 및 사회적 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취업스트레스의 성격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미래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경호전공 대학생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취업전략 및 미래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호관련 전공대학생에 국한된 연구이다. 그러나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의 접근 및 시도가 요구될 것이다.

둘째, 취업스트레스의 요인이 직업정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이는 연구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하여 개개인의 세부요인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설문지의 획일화로 인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보다 의미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설문지를 이용한 표준화검사와 더불어 심층적인 상담 기법 또한 함께 이루어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연구의 범위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전국적 단위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2012), <http://cesi.kedi.re.kr/index.jsp>
- 강유리(2006).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1993).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혜원(2009).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의 부모애착,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수(2004). AMOS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 김명옥(2011).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용·허선(2009). 사회복지 전공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연구-충남지역 4년제 대학의 졸업 예정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vol. 9, pp.23-51.
- 김수영(2007).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와 진로에 관한 연구-전북지역 3개 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이기학, 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김진석(2006). 대학 태권도 전공자들의 졸업 후 희망 진로 선택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스포츠산업경영학과.
- 이미경(200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주(2009).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및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조(2002). 자기에적 성격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선(2009). 자기 효능감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 임솔미(2012).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시험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 지지의 주 효과 및 완충효과 검증,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도현(2009). 전문대학생 취업진로지도 방안 연구-오산대학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행정 대학원.
- 황성원(1998).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Abstract】

**The Study about the Effect on
Self-effectiveness of a Course Decision of Duty
Stress in the College Students Related to Guard
Major Study
- Centering Around Gwang-ju and Jeonnam Region -**

Kim, Pyong-Soo
Kim, Kong
Seo, Seok-Yun
Kim, Yeong-Nam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 on self-effectiveness of a course decision of duty stress in the college students related to guard major study.

For this, the college students related to guard major study in Gwang-ju and Jeonnam region were selected as a universe at April 2011. And a sampling was practiced as a random sample.

A question investigation was used in a entry method of self-estimation. Furthermore a total of 171 person(85.5%) was used as final analysis data.

The collected data were employed in a statistics program of SPSS for win version 17.0 . And used in a way of Pearson's inte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conclusion was as follows.

Firstly, family surroundings stress and studies stress of duty stress affected beneficially statistically a goal selection of self-effectiveness of course decision. Family surroundings influenced upon it positively. And studies effected on it negatively.

Secondly, all factors of duty stress didn't affect beneficially statistically the work information of self-effectiveness of course decision.

Thirdly, school surroundings stress of duty stress influenced upon positively

statistically the problem solution of self-effectiveness of course decision.

Fourthly, personality stress and duty anxiety stress affected beneficially statistically the future plan of self-effectiveness of course decision. Personality influenced upon it negatively and duty anxiety affected it positively.

Key words : Guard major, Security, Job stress, Career self-efficacy,
University & college student